

2024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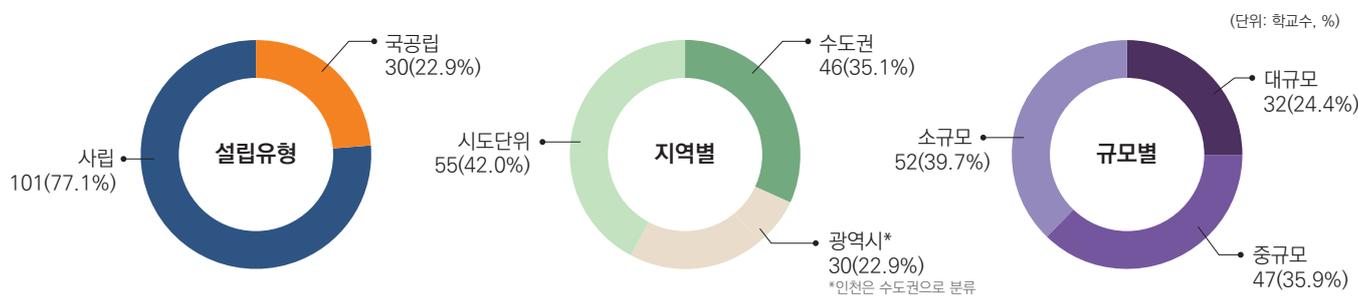
2024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Ⅱ)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 박상규
담 당 | 대학혁신지원실 기획혁신팀
이성은 팀장, 김흔 연구원
문 의 | 02-6919-3816
발행일 | 2024.06.19.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 2024년 5월 30일(목) ~ 6월 10일(월)
- **조사방법** :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 회원대학 190개교* → 131개교 응답(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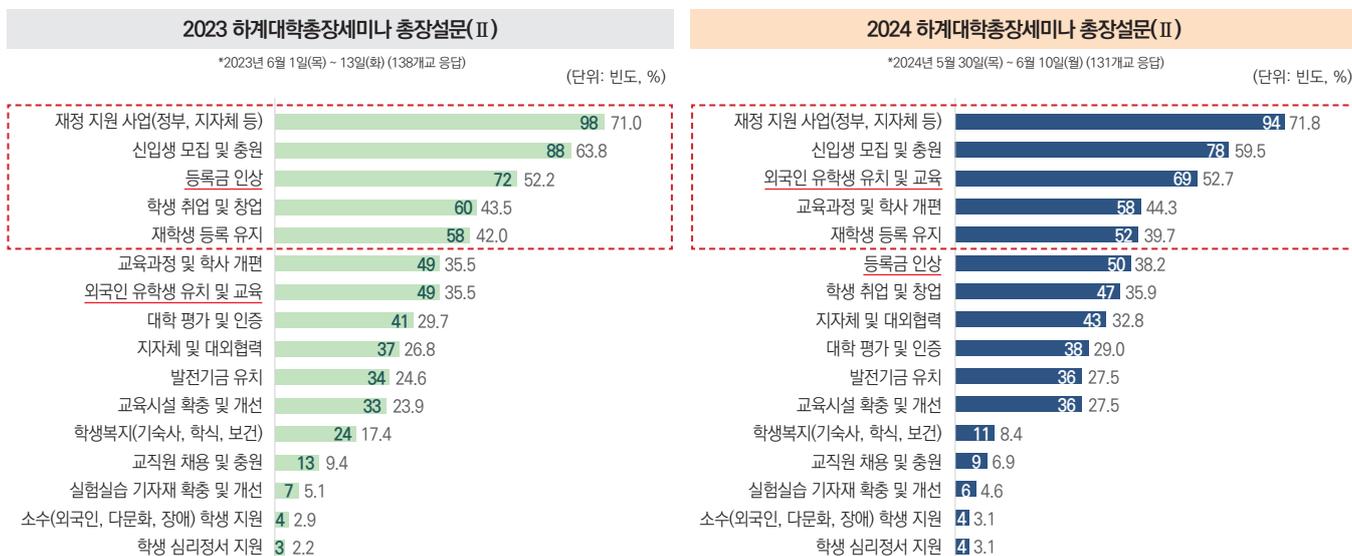
* 문항특성상 특별대 7교 제외(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전통문화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그림 1] 응답대학 특성

Ⅱ.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

- (전체)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1.8%(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59.5%(78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52.7%(69명),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4.3%(58명), '재학생 등록 유지' 39.7%(52명) 순으로 나타남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1, 2위로 순위 변동은 없음
 - 전년 대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은 큰 폭으로 상승(17.2%p, 35.5% → 52.7%)하였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하락(△14.0%p, 52.2% → 38.2%)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2023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비교)

○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른 관심 영역은,

-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 소규모 대학에서 1위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은 순위에 들지 않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은 국공립과 소규모 대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 3위로 나타남
- '지자체 및 대외협력'은 국공립에서 2위로 높게 나타났고,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수도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서 4순위로 나타남

〈표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상위 5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	1	1	1	1	2	2	1	1	2
신입생 모집 및 충원	2	5	2		1	1		2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3		3	2	3	3	2	3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	3	5	2	5	4		5	3
재학생 등록 유지	5	5			4	3		4	5
등록금 인상			4	2			3	5	
학생 취업 및 창업		3		5	5	5	5		
지자체 및 대외협력		2		4					
대학 평가 및 인증									4
발전기금 유치				3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4		3			4		



III.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



〈그림 3〉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1순위)

○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 (37개교, 28.2%)이 1위로 나타남

- 이어 2위는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24개교, 18.3%), 3위는 '대학 관련 규제 완화'(21개교, 16.0%)로 나타남

○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른 최우선 과제는,

- 국공립 대학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 강화', 광역권 대학은 '대학 관련 규제 완화'와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 강화', 대규모 대학은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과 '교육 인프라 개선 및 확대'가 1위로 나타남(〈표 2〉 참조)

〈표 2〉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3순위)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	1	2	1	1	2	1	2	1	1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	2	3	2	2	3		1	2	
대학 관련 규제 완화	3	2			1	3	3	3	2
교육 인프라 개선 및 확대			3	3	3		1		2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 강화		1			1	2	3		3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및 교수법 개발									3

○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총 5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사회변화에 대응한 교육체제 개편',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및 협의'가 1, 2위로 나타남. 이외에도 '대학의 자율성 강화(규제 완화)', '산학 연계 강화', '정부 재정 지원' 등이 있음

○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총 5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대학의 기존 내부 체계(시스템)의 변화', '구성원 간의 공감대 확산'이 1, 2위로 나타남. 이외에도 '무전공 및 융합 전공 확대에 따른 학생 및 교강사 지원책 마련',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구축'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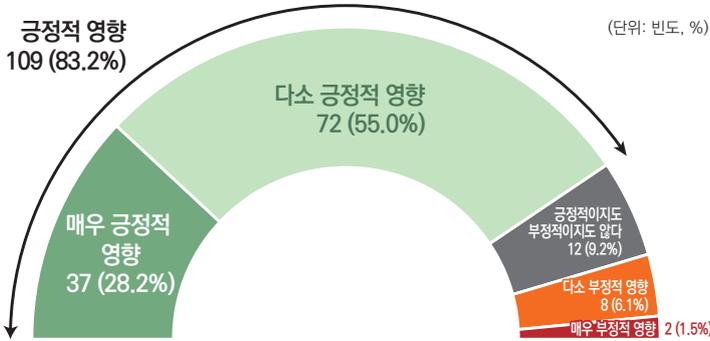
○ '대학 관련 규제 완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총 5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1위로,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이 2위로 나타남.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 관련 규제 개선', '정부 재정 지원금의 자율적 집행' 등이 있음



IV. 미래 대학사회에 생성형 AI(Chat GPT 등)가 미치는 영향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드 등의 기존 콘텐츠를 학습·활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함. 문서 생성에 특화된 도구인 Chat GPT, Bard, 이미지 생성 도구인 DALL-E, Stable Diffusion 등이 있음



[그림 4] 생성형 AI가 미래 대학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생각

- 응답한 131개 대학 총장들의 대부분은 생성형 AI가 미래 대학사회에 긍정적인 영향(109개교, 83.2%)을 미칠 것으로 낙관함
 - 긍정적 영향으로 응답한 경우, 설립유형,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남
 -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응답은 소수(10개교, 7.6%)에 불과함

- 생성형 AI가 미칠 긍정적 영향(장점)은 총 10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교육 서비스 고도화 및 개별화 학습'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인 변화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적 변화'가 2위로 나타남
 - 대학의 교육, 행정, 연구 등 전 분야의 효율성 증대를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함
 - '변화하는 사회의 맞춤형 인재 양성'은 단순하고 소모적인 작업을 시가 대신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인재 양성은 '창의성'과 '인간다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시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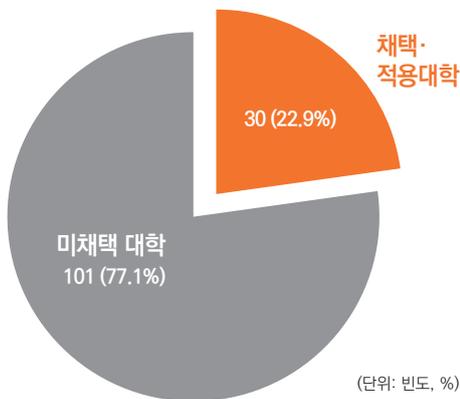


[그림 5] 생성형 AI가 미칠 긍정적 영향(장점)

- 생성형 AI가 미칠 부정적 영향(단점)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교수 및 공정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있음



V.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가이드라인 등)



[그림 6]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 채택·적용 여부

- 생성형 AI에 대한 공식적인 학교 정책(가이드라인 등)을 적용·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응답한 131개 대학 중 30개교(22.9%)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을 적용·채택하고 있는 30개교가 응답한 생성형 AI가 미래 대학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인 영향' 11개교, '다소 긍정적인 영향' 17개교,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1개교, '다소 부정적인 영향' 1개교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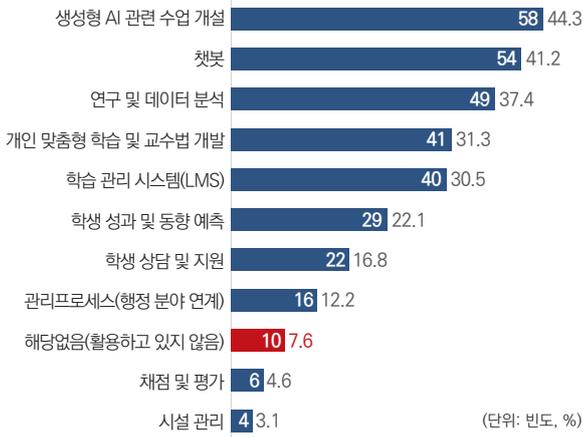
-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가이드라인 등)에서 채택·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됨
 - '교강사 가이드라인(지도법 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AI 활용 윤리교육(연구 관련 포함)'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윤리교육 강의 필수 수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부정행위, 표절 관련(출처 표기 방법 등) 구체적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고, 'AI 활용 가능 강의 범주'를 마련하여 특정 과목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그림 7】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

VI. 대학에서의 AI 활용 현황(중복 선택)

- AI(생성형 AI 포함) 활용 현황은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58개교, 44.3%)이 1위로 나타남
 - 이어 2위는 '챗봇' (54개교, 41.2%), 3위는 '연구 및 데이터 분석' (49개교, 37.4%)으로 나타남
 - 기타 활용 현황으로는 ▲교수·직원 개별 활용, ▲도입 준비 중, ▲비교과에서 활용, ▲교직원 채용 시 활용, ▲공모전, ▲AI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있음
 - AI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10개교(7.6%)로 나타남



【그림 8】 대학에서의 AI 활용 현황

-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른 AI 활용 현황은,
 - 국공립, 수도권, 소규모 대학에서 '챗봇'이 1위로 나타났고, 국공립 대학은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 소규모 대학은 '학습 관리 시스템(LMS)'가 공동 1위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3〉 대학에서의 AI 활용 현황(5순위)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	1	1	1	4	1	1	1	1	3
챗봇	2	1	2	1	2	2	2	3	1
연구 및 데이터 분석	3	2	3	2	2	3	3	2	2
개인 맞춤형 학습 및 교수법 개발	4		4	3	3	5	5	4	2
학습 관리 시스템(LMS)	5	3	5	4	4	4	4	5	1
학생 성과 및 동향 예측		5		5	5		4		4
학생 상담 및 지원		4							
해당없음(활용하고 있지 않음)									5

Remark

대학혁신과 AI시대 고등교육 변화 방향

1.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수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인상규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가 긴급한 현안으로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1위로 나타났고, '신입생 모집 및 충원'(2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3위), '재학생 등록 유지'(5위)가 높은 순위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2. 대학 총장들이 선택한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 1위는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이며, 2위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 3위 '대학 관련 규제 완화'로 나타남. 세 항목 모두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회변화에 대응', '구성원 간의 소통·공감대 형성',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안정적 재정 지원' 이 필요한 공통 범주로 분류됨
3. 대부분의 대학 총장들은 생성형 AI가 미래 대학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특히 '교육 서비스 고도화 및 개별화 학습'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음. 그러나, 현재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 정책(가이드라인 등)을 적용·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응답 대학 131개교 중 30개교(22.9%)로, 대부분의 대학이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 대학에서의 AI 활용 현황은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이 1위로 나타났고, 이어 '챗봇'(2위), '연구 및 데이터 분석'(3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개인 맞춤형 학습 및 교수법 개발' 등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대학들은 '변화'와 '혁신'의 강한 필요를 체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과정 체제 개편을 통한 융복합 교육으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그러나 15년간 등록금 동결·인하, 학령인구 급감,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가용재원의 한계는 대학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임. 대학혁신을 위해 대학 규제 개선과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